

#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박선미\*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e-mail:drpark@gnu.ac.kr

## The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in relation to digital citizenship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unmi Park\*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역량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소재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및 아동(가족)학과 재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t-검증, Borich 공식을 이용한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요구도 산출 과정을 거쳐 최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술활용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현재 실행하는 수준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참여, 협업, 표현제작 역량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에 따른 디지털 시민성 역량의 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 전공의 경우에는 참여, 협업 순으로 나타났고, 아동(가족)학 전공의 경우 참여, 표현제작, 협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교과목 교육경험 유무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 협업이 차순위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 협업, 표현제작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메타버스를 비롯한 첨단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현실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에서도 인간 공동체의 의미를 존중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성으로 통칭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확립하고 스스로 그 규범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1].

그동안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여러 이론적 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소 추출 및 척도개발, 초·중등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 분석,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인식 등 관련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도를 조사한 서진희, 박선미[2]의 연구가 있으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는 수행된 바 없으며 관련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원양성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

게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디지털 시민성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요구 수준에 맞춘 예비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와 아동가족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예비유아교사 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4명(9.0%), 여학생이 243명(91%)이었고 학년은 3학년 155명(58.1%), 4학년 112명(41.9%)이었다. 전공별로는 유

아교육과가 161명(60.3%), 아동(가족)학과가 106명(39.7%)이었으며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은 '있음'이 115명(43.1%), '없음'이 152명(56.9%)이었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기술활용, 참여, 표현제작, 자기보호, 협업, 타인배려의 6개 하위 영역,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 문항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수준에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지털 시민성 역량 측정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전체 .937로 높게 나타났다.

##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개발 개발된 설문지 배부 및 회수, 설문지 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안정임과 최진호[3] 연구의 문항을 유아교육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서진희, 박선미[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부정확한 의미전달과 적절한 응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 20명(유아교육학과 재학생 10명, 아동가족학과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적절한 용어, 중복 문항 등 설문 내용 수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처리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대응 t-검증 Borich의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요구도 산출과정을 거쳐 최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은 기술 활용을 제외한 6개의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그 순위를 살펴보면 참여가 4.1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업 1.91, 표현제작 1.74, 자기보호 1.17, 타인배려 0.56, 기술 활용 0.40 순으로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두 가지의 우선순위 도출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을 살

펴보면,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표현제작,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 3.2 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별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

전공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수준 차이 및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유아교육 전공의 경우에는 기술 활용을 제외한 5개의 역량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아동(가족)학 전공의 경우에는 기술 활용, 타인배려를 제외한 4개의 역량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유아교육 전공의 경우 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참여가 4.0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업 2.01, 표현제작 1.36, 자기보호 2.01, 타인배려 0.66, 기술 활용 0.41 순으로 높았다. 아동(가족)학 전공의 경우에는 참여가 4.2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표현제작 2.28, 협업 1.75, 자기보호 1.10, 타인배려 0.42, 기술 활용 0.38의 순이었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최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 두 가지 우선순위 도출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전공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아동(가족)학 전공의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표현제작,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유무에 따른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은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활용, 타인배려를 제외한 4개의 역량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6개 역량 모두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가 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업 1.45, 표현제작 1.14, 자기보호 1.14, 타인배려 0.33, 기술활용 -0.05의 순이었다.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가 4.48, 협업 2.25, 표현제작 2.19, 자기보호 1.19, 타인배려 0.74, 기술활용 0.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두 가지의 우선순위 도출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역량을 살펴보면,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표현제작, 협업은 차순위로 나타났다. 경험이 없는 경우 역시 최우선 순위는 없었고, 참여, 협업이 차순위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연

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교원양성교육에서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참여’, ‘표현제작’과 ‘협업’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 기회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예비유아교사의 전공 및 교육 경험 유무를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푸른나무재단, “2022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함의 연구 -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2022년.
- [2] 서진희, 박선미,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11호, pp. 738-747, 11월, 2022년.
- [3] 안정임, 최진호,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57호, pp. 133-177, 6월, 2020년.